

이웃

vol.02

원고개 마을신문 2017.12 | 희망 원(ONE) 고개마을 소식지

이웃

[잇다 :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vol.02

원고개 마을신문 2017.12 | 희망 원(ONE) 고개마을 소식지

원고개 시장소개

월간 원고개

원고개 픽(PICK)

대평중학교 은행나무길

책소개

원고개마을 사람책, 마을책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소소한 원고개마을 이야기

마을 활동가의 일기장

화주일기

알림장

원고개 다락방



원고개시장의 시작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상 감영으로 향하는 관찰사를 따라 한양에서부터 따라온 서민들이 있었다.

이미 농사는 짓고 있었기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재 원고개시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도봉산역사박물관

“

3월의 원고개시장은 장을 보러 왔다 정을 나누고 가는 곳이다.

우연히 이웃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가판대에 눈길 한번 손길 한번 건네며 마음 한 켠까지 내주고 가는 곳이다.

”

원고개시장은 북비산네거리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잡화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원고개시장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한 아케이드 설치와 내부 공간 정비 등으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자랑한다.

시장 벽면과 바닥에는 원님설화를 소개하는 벽화와 장식물이 있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서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원고개시장

월간 원고개

8/22 ~ 11/29

주민참여 마을학당
(심화반)



영주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영주 구성마을, 금강역 레일카페

9/25



바리스타 심화교육

8/28 ~ 11/27



9/5 ~ 10/10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심화반)



원고개 다락방 개소식
및 마을축제

9/21



9/28

동네부엌
'한가위 송편빚기'



마을미래학교
'원고개 마을시간여행단'

10/14 ~ 12/9



시흥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 매화 동네관리소, 도일시장, 광명동굴

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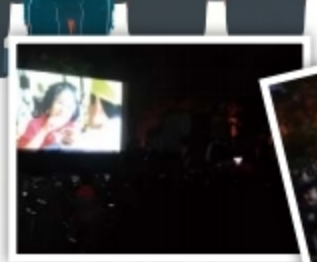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창립총회

10/18



제4회 달빛극장

10/20



10/26

동네부엌
'나만의 케익만들기'



11/28

동네부엌
'수제청 만들기'



대평중학교 은행나무길

대평중학교 옆의 은행나무 길입니다.

은행나무가 줄을 지어 서있어 가을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도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평중학교 근처 은행나무길

“

일상 속 매 순간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쳤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거닐며, 고난 나누지 못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세요.
덤으로 추억 사진 한 장 남기는 것, 잊지마세요!

”

원고개마을 사람책, 마을책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지만 서로 기억하고 있는 마을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원고개마을 사람책과 마을책을 통해 미처 몰랐던 이웃의 이야기와 마을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사람책



우리 마을에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과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가진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을 품은 원고개마을이라는 공간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좀 더 귀 기울여 보는건 어떨까요?

마을책



전해 내려오는 춤과 전설, 아주 옛날부터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오래된 물건들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장소까지...

우리 마을은 작지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크고 많습니다.

부수고 높고 넓기만을 쫓는 요즘...
한 번쯤 천천히 우리 마을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소한 원고개마을 이야기

우리 마을만을 위한 협동조합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원고개마을 주민들이 직접 모여 마을 소통과 발전을 위해 세 달여 간의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상호 간의 배려와 협동의 중요성 및 마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 등 긴 논의와 준비를 거쳐 지난 10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식명칭은 '원고개마을 협동조합'으로 김진동 이사장을 비롯해 마을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 영업장은 원고개마을 다락방 1층에 있는 북카페로 카페에 근무하기 위해 조합원 중 일부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북카페 외에도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며, 발생 수익의 일부는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만큼 관심있는 마을 주민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동네 골목 어귀 곳곳에 예쁜 꽃과 식물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동네 꽃밭 가꾸기 사업을 통해 마을 빈 공터에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텃밭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텃밭 돌보기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와 잠시 동안은 만나보기 힘들겠지만, 다가오는 봄 마을 어귀어귀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며 일상 속의 자연과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동네 이야기가 TV와 라디오 전파를 탔습니다.

10월 26일에 티브로드 뉴스에 원고개 다락방의 이모저모가 방송되었고, 11월 3일에는 KBS대구 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에 대구시 도시재생사업 사례 중 하나로 방송되었습니다.

TV 속, 라디오 속 반가운 우리 마을 모습과 이웃의 얼굴, 목소리를 한 번 찾아보세요.



화족일기

몇 년 전, 지금은 고 3인 아이가 처음 내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이에게 심정이 어떨지 물었었다.

첫 대답이

“딱 이 심정인데, 노래 한 곡 할까요. 설레임과 두려움의 불안한 행복이지만~~”

그 너스레에 마음이 놓였었다.

설레고 두려운 건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경우에 당연한 일일테고, 불안하지만 행복하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되었지 하고 마음을 놓았다.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지금, 10개월 전쯤 그 시작을 돌아보면 딱 그런 심정이었지 싶다.

적어도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지금. 10개월쯤인가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을활동가'는 참 어색하고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마을사람들 중 마을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유독 '○○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민망한 일이다.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1년여를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 중 바리스타 팀 회의의 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해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거는 맞나, 실행 얘기도 하고 나서 뭐 얘기하나마나 되는 거 아냐?”

서로 어색하기만 했던 바리스타팀이 꾸려지고, 함께 교육을 받고 원고개 다락방 북카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

팀 회의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순간이었었던 것 같다. “물론!”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아직 '마을활동가'의 시작점에 있는 나로서는 조금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의사결정권, 의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마을활동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고, 역시 남는 건 사람이란 말이 깊게 와 닿는 걸 보면 마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어찌하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본다.

1년 가까이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이 하나 생겼다. 받은 것이 큰 만큼 마을에서 꼭 소용되는 사람 되기!! 내년 마을 활동의 목표라고 해두어야겠다.





지난 4월 건립된 원고개마을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9월 21일 정식개소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원고개 다락방(多樂房)'입니다.

다락방은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써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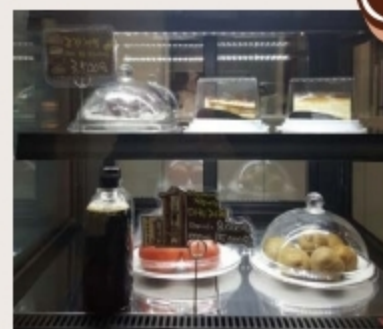


이 다락방 1층에 '원고개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고개마을 주민 바리스타 13명이 마을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5달여간의 기간동안 커피의 이론과 레시피 숙지부터
서비스 매뉴얼과 손님응대까지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Coffee		Smoothie & Soda		Juice		Beverage		etc	
Menu	Price	Menu	Price	Menu	Price	Menu	Price	Menu	Price
에스프레소	1500	바나나스무디	3000	생과일주스		알미요(Almido)	2000	농심당수	8000
아메리카노	1500	레몬아메리	2500	- 딸기	3500	향초로	2500	(무유, 녹차,	
		블루베리아메리	2500	- 자두	3500	한방홍삼차	3000	달고, 요거트)	
카페라테	2500	차콜아메리	3000	- 바나나	3500	녹차라테	2500	3000	초카케이크
바닐라라테	2500			- 토마토	3500	홍차라테	2500	3000	베이글
카라멜라테	2500			- 블루베리	4000	고구마차	2500	3000	와플
모카라테	2500	요거트스무디	3500			류기농치즈치			서구식빵
카푸치노	2500	과일스무디				- 레몬아미	2000	2500	
차콜라아메리	3500	- 딸기	3500			- 자몽아미	2000	2500	
카페오레	3500	- 자두	3500			- 녹차	2000	2500	
카라멜카푸치노	3500	- 블루베리	3500			통차	2000	2000	
카레인도모카	3800					자몽차	3000	3000	
다치(콜드브루)	3000					한방차/생강차	2000		

이웃 간 나눔과 소통을 위한 곳인만큼 **일반 카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질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페 한 칸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뜨개질 소품과 인형, 장신구, 수세미 등 다양한 생활잡화와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성인을 위한 문학, 비문학 서적부터 만화책, 잡지, 동화책 등 전 세대를 위한

500여권의 다양한 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커피 한 잔 하며

마음의 양식과 즐거움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